

2016 건설의날 기념행사



2016 건설의날 기념행사가 지난 6월 1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됐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최삼규)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후원한 ‘2016 건설의날 기념행사’가 지난 6월 1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올해 행사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강호인 국토부 장관, 건설관련 단체장 및 건설기업 임직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 수요 감소와 저유가에 따른 수주 감소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국민과 함께 하는 건설, 세계로! 미래로! 대한민국 건설, 희망을 세우다’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최삼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땀과 열정으로 매진하여 국가경제와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수상자들을 축하한다”면서 “건설산업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ICT 신기술 구현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 개발, 노후인프라 개선과 도심재생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물량을 창출하고, 수익성 위주의 선별수주와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건설산업은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



축사를 하는 황교안 국무총리

이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제경쟁의 가속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건설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때이다”면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새로운 건설

수요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건설산업을 첨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인 153명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시상

이날 기념식에서는 총 153명의 건설인이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기계설비업계에서는 (주)백산이엔씨 김주환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연합개발(주) 이규식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한신이엔지건설(주) 김철호 대표, 해광이엔씨(주) 조인호 대표, (주)우노건설 최성열 대표, (유)대건기업 홍석범 대표, (주)건형설비 최명흠 대표, (주)대명이엔지 김완수 대표, 경원세기엔지니어링(주) 이영호 대표, (주)평강건설 최기성 대표, 공조기특판산업(주) 최재식 대표 등 9명의 회원사 대표가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

2016 건설의날 기계설비건설업계 수상자 명단

성명	소속	직위	훈격
김주환	(주)백산이엔씨	대표이사	은탑산업훈장
이규식	연합개발(주)	대표이사	대통령표창
김철호	한신이엔지건설(주)	대표이사	장관표창
조인호	해광이엔씨(주)	대표이사	
홍석범	(유)대건기업	대표이사	
최명흠	(주)건형설비	대표이사	
김완수	(주)대명이엔지	대표이사	
최성열	(주)우노건설	대표이사	
이영호	경원세기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최기성	(주)평강건설	대표이사	
최재식	공조기특판산업(주)	대표이사	

‘2016 건설의 날’ 영광의 기계설비건설인



2016 건설의날 참석 회원사와 함께
 (왼쪽부터 대원엠이씨(주) 이종원 대표, 해광이엔씨(주) 조인호 대표, 한신이엔지건설(주) 김철호 대표, 협회 이상일 회장, (주)백산이엔씨 김주환 대표, 협회 박인구 고문, 협회 심기석 윤리위원장, 협회 전북도회 이영길 회장, 협회 강신구 상임부회장, 연합개발(주) 이규식 대표)

은탑산업 훈장



김주환 / (주)백산이엔씨 대표

주요 국책사업 수행과 일자리 창출, 기술자 육성 및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

(주)백산이엔씨 김주환 대표는 지난 37년간 건설업을 영위하며 대구도시철도 1·2·3호선,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경북도청 및 의회 신청사 등을 최상의 품질로 시공하여 국가사업의 완수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대구월드컵경기장, 대구유니버시아드 선수촌,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선수촌 등 대구에서 개최되는 체육시설물을 완벽 시공함으로써 국위선양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편 김포한강신도시 AC-11블럭 주택건설공사(2012년), 남양산 e-편한세상 신축공사(2013년), 송도 F-21-23-1 공동주택신축공사(2015년) 등 연면적 8,913,015㎡ 2만 8천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고품질로 시공하여 국민주거생활 안정도 기여하고 있다.

은탑산업 훈장

뿐만 아니라 해외수입에 의존하던 기계식 덕트제작 자동화라인 국산화, 승강로 가압 제연시스템 적용, 신소재(EPP) 전열교환기 적용, 입상배관 지지철물 공장 제작, 스리브 일체형 제연덕트 적용 등 신공법 도입에 매진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시공실명제와 Before service 개념 도입 등 투명경영으로 하자 발생률 30% 감소와 고객불만 ZERO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주)백산이엔씨는 지난 2007년부터 현장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본사와 현장 간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자체 품질안전단 운영을 통하여 발주자와 최종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에 매진함으로써 건설업계 공동발전과 경제민주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철저한 시공품질 점검으로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관리를 계도하고 있다.

한편 김주환 대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회장(8, 9대), 대구상공회의소 상공의원(21, 22대), 대구광역시 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 및 대구광역시 아파트관리전문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1년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 제

정, 2012년 공공공사의 저가하도급심사제 개선시행 등 국가제도개선 창안에 앞장서 건설산업 선진화에 공헌했다.

2012년부터 대구공업대학 출강으로 후학을 양성하는 한편, 대구지역 건설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기술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기능공들을 대상으로 매년 기술교육과 인정기능사 취득을 독려해오고 있으며, 현장 곳곳에 장애인을 고용하여 능력에 맞게 배치함은 물론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인 '해성보호'에 지난 2012년부터 후원금을 기탁하는 등 '참된 복지'를 실현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구영남로타리클럽 이사 및 대구공고 제50회 동기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독거노인 사랑의쌀 나누기, 소외계층에 대한 장기지원,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나눔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인으로서 지역사회의 존경을 받고 있다.

김주환 회장은 “이 상은 저 혼자만의 상이 아닌, 백산이엔씨의 모든 직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난 37년간 흘렸던 땀과 열정이 만들어낸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큰 상을 주시어 부끄럽습니다만,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는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순간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서 기계설비산업이 신기후체제 시대를 리드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해왔듯이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여 백산의 모든 직원과 근로자들이 행복한 일터로 여길 수 있도록 희망 가득한 회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은탑산업훈장 수훈 소감을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한 김주환 대표

대통령 표창



이규식 / 연합개발(주) 대표

**발전플랜트 등 국가에너지 기발시설공사 성실 수행
신공법 개발과 10년간 무재해 달성으로 국가산업 안전망 구축**

연합개발(주) 이규식 대표는 지난 30년간 건설업을 경영하며 2004년 PIPE SHOP 자동화 용접 및 배관의 가공자동화 공법 개선 등 신기술 개발로 cold box와 진공 tank 제작설치 기술을 크게 개선시켰다. 지난 2005년 포스코에너지(주), 2008년 대성산업가스(주), 2010년 포스코에너지(주), 2012년 한국동서발전(주), 2014년 (주)포스코 공장 등의 산업가스시설공사를 수행했으며, 2010년에는 utility의 용접가공 자동화 설비시스템 개발 등 신공법을 개발함으로써 2011년 파주 반도체공장, 동해 바이오에너지 설비공사, 2012년 국립암센터 공사수행 등 국가 첨단산업 시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연합개발은 2000년 ISO 9001, ISO 14001, 2014년 OHSAS 18001 인증 취득 등 시공품질, 환경 및 안전시스템 구축으로 업무효율의 극대화를 통해 최근 5년간 하자발생률 0%대의 고품질 시공을 달성했으며, 2010년부터 포스코에너지(주)의 동반성장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기하고 있다. 특히 'Blue Activity'라는 사내 직원 동아리를 결성하여 월 1회 이상 직원 모임을 통해 원가절감, 품질향상, 기업경쟁력 강화를 유도하여 고품질의 시공물 창출은 물론, 부실시공 예방을 통해 발주자와 최종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합개발은 현대건설기술교육원과 MOU 체결을 통하여 최근 10년간 200여명의 우수기능인력을 교육 및 국내외 건설현장에 파견함으로써 기능인력 양성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했으며, 2012년부터 아주대학교에 장학금을 기부, 임직원에게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및 우수근로자 학자금 지원 등을 통해 노사 상생문화 선도에 앞장섰다.

한편 이규식 대표는 2011년부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 운영위원, 2014년부터 협회 이사를 역임하며 저가하도급심사제 개선시행, 주계약자 공동도급 도입 및 확대추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기계설비 반영,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현금지급) 도입 추진, 불공정하도급거래제도 개선 등 건설관련 제도개선 및 해외진출 지원 활성화 등 원·하도급 업체 간 상생협력 기틀 마련에 기여함으로써 건설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장관 표창

김철호 / 한신이엔지건설(주) 대표

**철저한 공사품질 관리로 부실시공 방지, 지역사회 활성화 및 주민화합 선도**

한신이엔지건설(주) 김철호 대표는 지난 14년 동안 기계설비건설업을 영위하며 남다른 책임감과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기업 내실화를 다져왔으며, 철저한 안전관리로 지금까지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현장을 관리해 근로자의 안전의식 함양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지난 2014년 강원도 삼척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호산초 다목적실 신축 기계설비공사'를 비롯한 다수의 세관, 공조 등 기계설비 개선공사를 수행하며 고객감동을 목표로 완벽 시공했으며, 사후 서비스를 강화해 지속적인 점검을 펼쳐 하자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공공공사의 기계설비 공사 품질 제고와 에너지 절감에 공헌했다.

한편 김철호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을 역임하며 전국 최초로 강원도 분리발주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함으로써 업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지역사회와 업계간 상호 발전을 위해 유대관계를 강화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법무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점 범죄예방 위원과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 청소년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며 애착과 열성으로 지도하여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0년 강원도지사 표창 및 2011년 강원도교육감 표창을 수상했다.

조인호 / 해광이엔씨(주) 대표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국가 기반시설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해광이엔씨(주) 조인호 대표는 지난 17년간 건설업에 종사하며 다양한 분야의 건설현장에 도전적으로 참여하여 국가기반 시설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특히 당산동 쌍용예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기계설비 공사를 비롯해 연원마을 삼호벽산아파트 ESCO 사업, 성남여수나아파트, 안양동삼아파트 재건축, 우면동SH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에 참여했으며, 품질향상과 철저한 사후관리 공로를 인정받아 (주)효성, 고려개발(주)의 우수 협력업체로서 표창을 받았다. 또한 성남판교 지하차도 공사, 마산항 개발공사, 인천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공사, 신분당 연장선 공사, 부산지하철 153공구 등 사업에 참여해 국가 기반시설 건설에 이바지했다.

해광이엔씨는 또한 건설현장 재해로 인한 개인 및 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기 위해 현장 근로자 및 관리자에게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 잠재적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1년부터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시공품질관리를 위한 체계를 확립하는 등 전문건설업체의 모범을 보였다.

한편 조인호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대표회원 및 운영위원, 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하며 기계설비건설업계의 제도개선 및 원·하도급간의 공생협력 관계 정립을 위해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장관 표창

홍석범 / (유)대건기업 대표



철저한 시공관리와 완벽한 사후 서비스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

(유)대건기업 홍석범 대표는 지난 21년간 기계설비 분야에서 품질 제일주의와 철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원칙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전라북도 기계설비건설업계의 위상을 높여왔다.

특히 완주군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 국민연금공단 지방이전 본부회관 신축공사 등 공공공사 뿐만 아니라 임실치즈밸리의 유가공공장, 도축산폐수처리시설 등 원예·축산·양식 관련 기계설비공사를 수행하며 철저한 품질관리로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직원간의 믿음과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방침으로 안전 및 품질관리를 실현하고 임직원의 안정적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모범을 보였다.

한편 홍석범 대표는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와 월드비전(World Vision)을 통해 아동돕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인연 존중과 희망, 그리고 자립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기업인의 모습을 실천했으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원으로서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본회 대의원 등을 역임하며 지방자치단체 분리발주 활성화 및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는 등 기계설비인의 모범이 되고 있다.

최명흠 / (주)건형설비 대표



친환경 설비기술 발전 및 부산지역 기계설비업계 발전에 기여

(주)건형설비 최명흠 대표는 지난 19년간 다수의 지열, 태양열 공사를 수행하며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술을 축적했으며 EBS 디지털통합사옥 지열공사, 국립서울병원 연구 및 부속시설 지열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방이전 신사옥 지열공사, 광안초등학교 지열 및 태양열 공사 등을 성공적으로 시공해 친환경 설비 발전과 에너지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최명흠 대표는 친환경 관련 신기술·신공법 개발 및 생산성 향상 기술을 인정받아 설비 시공 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주)대우건설 등 35개 종합건설업체와 협력 파트너십을 맺고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최명흠 대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부산지역 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 건의, 부산지역 하도급현장 실태조사 건의,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건의, 부산지역 건설기능인력 양성센터 설립 건의 등 기계설비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이를 통해 부산지역 기계설비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시공품질 향상을 촉진했다.

또한 최명흠 대표는 청년희망재단,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민족문화사업회, 부산외국어대학교 등 사회단체에 후원기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협회에서 추진하는 불우이웃돕기 행사도 빠짐없이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장관 표창

김완수 / (주)대명이엔지 대표



국가 공사 성실 수행, 고품질 시공으로 업계 신뢰성 제고

(주)대명이엔지 김완수 대표는 지난 16년 동안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및 기계설비공사 업에 종사하며 NH공사, 충청남도교육청, 보령화력, 중부도시가스 등에서 발주한 가스설비공사 및 기계설비공사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오랜 현장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품질 시공을 달성하여 시설물 환경개선은 물론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주)대명이엔지는 지난 2007년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ISO 9001 인증 취득 후 현재까지 품질경영을 강화하며 업무 효율을 높이는 등 안정적인 경영으로 지역 기계설비업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한편 김완수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대전·충남지역 기계설비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연구 및 강연·강습회 등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산·학·연·관 화합을 이끌어내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최성열 / (주)우노건설 대표



신공법 설계와 철저한 시공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주)우노건설 최성열 대표는 지난 35년간 건설업에 종사 및 경영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아파트의 지역난방 전환 사업에 참여했으며 신재생 에너지 공법을 적극 적용하여 국민 주거 및 편의 시설의 에너지 절감에 기여했다.

특히 화성동탄 A2BL, 화성남양뉴타운 A3BL, 세종시L6BL 등 97건의 ESCO 사업에 참여하여 주거시설의 난방비 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으며, 그밖에도 2013년 황성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태양열 시스템을 이용한 집열기 설치, 2014년 하남미사 A15BL 아파트 2공구 현장의 히트펌프 설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들이 에너지 사용 요금 30% 가량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아래벉길사업 시설공사, 황성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성남비행장수용시설 천안종합문화예술회관 설비공사 등 민자사업 및 공공공사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 기반시설 건설에 이바지했다.

한편 최성열 대표는 순석복지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하며 기업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고 있으며, 사내 복지 향상을 위해 우수근로자 포상과 가족동반 여행 경비를 제공함으로써 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10년에 이르는 등 업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장관 표창

이영호 / 경원세기엔지니어링(주) 대표



기술혁신 통한 원가절감 및 완벽시공으로 기계설비 발전 촉진

경원세기엔지니어링(주) 이영호 대표는 지난 38년간 기계설비분야에 종사하며 끊임없는 시공기술 축적을 통해 원가절감을 실현하고 균일한 품질관리로 회사 경영을 안정시켜 경쟁력을 갖추는 등 업계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남양주별내 옥외기계설비공사, 청주농업기술센터 기계설비공사, 포스코엔지니어링 냉난방기 기계설비공사 등 아파트, 공공기관, 공장 및 기타시설 공사를 수행하며 발주처에 각종 기술개선 설계변경을 건의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후 하자 발생을 줄이는 등 기술력을 가진 전문시공업체의 모범을 보였다.

현재 기계설비공사업, 난방시공업(1종), 냉동기, 특정설비 등 직접 제조업, 태양열 및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품질보증을 확립코자 ISO 9001을 취득해 품질경영을 강화하는 등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이영호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 운영위원 및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기계설비 분리발주 시행 확대,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정 건의, 계약제도 개선 건의 등 기계설비업계 환경개선을 통한 경영 안정화에 공헌했으며, 인명존중 캠페인을 펼쳐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복지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촉진시켜 기계설비업계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했다.

최기성 / (주)평강건설 대표



국민 주거생활 향상, 윤리경영으로 경영혁신 선도

(주)평강건설 최기성 대표는 지난 21년간 건설업에 종사하며 특히 울산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교사신축 지열공사 등 열배관설비공사에 주력하였으며,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경북지역 학교 및 주택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해 왔다.

또한 사업을 영위하며 건설기능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와 더불어 무재해에 만전을 기하여 혁신 기업으로 발돋움 했으며, 직원 복리후생을 비롯해 재해예방 안전교육, 건설관련 능력개발 교육 등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올바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고 직원 업무효율을 제고시키는 등 경북지역 전문기업의 모범을 보였다.

한편 최기성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운영위원을 역임하며 울산 플랜트 건설노조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등 지역 기계설비건설업계 현안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 불황 속에서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후원에 적극 나섰으며, 가정교육 프로그램인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개설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등 모범적인 기계설비인의 모습을 보였다.

장관 표창

최재식 / 공조기특판산업(주) 대표



국민 주거환경 개선 및 윤리경영 통한 경영혁신

공조기특판산업(주) 최재식 대표는 지난 21년간 기계설비건설업에 종사하며 공공기관 및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에 쾌적한 냉난방 공조설비 및 신재생지열설비 보급에 힘써 왔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남동경기장, 한국남동발전 등 공공시설과 민간공동주택에 냉난방설비공사에 참여하여 높은 기술력과 우수 시공품질로 발주자로부터 큰 신뢰를 얻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및 인천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공로로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

한편 최재식 대표는 지역사회 리더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내외일보 장학회, 청운대학교 등에 매년 기부하여 왔으며 향토 문화사업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 개발을 비롯해 아마추어 체육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뿐만 아니라 재능기부를 통해 인천지역 경로당을 대상으로 냉난방 설비 무상 점검을 시행하는 등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올바른 기업인의 표본이 되고 있다.



제69주년 대한민국 건설, 희망을 세웁니다!
2016 건설의 날 기념행사



대한설비공학회 2016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 기계설비 관련 논문 210편 발표 -



대한설비공학회(회장 강병하)는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용평리조트에서 '기후변화대응 미래 설비기술'이라는 주제로 2016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조직위원장 정시영, 서강대 교수)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설비엔지니어링협의회, 한국설비기술협회 등이 후원한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대한설비공학회 강병하 회장을 비롯하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이상일 회장, 한일엠이씨 최상홍 회장, 늘푸른재단 노연상 이사장, 국토교통부 이병훈 과장 및 양동인 서기관 등 정부, 대

학, 연구소, 발주처, 설계 및 시공사, 기술자 등 우리나라 기계설비 각 분야 종사자 약 1천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대한설비공학회 강병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학술발표의 주제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환경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뿐 아니라 인류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절실한 과제"라며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이라는 두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설비산업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이번 학술대회가 이 두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 산업계 및 학계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토론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이병훈 과장이 시상한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수상자인 정재동, 우성민, 김동호 연구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이상일 회장이 시상한 우수논문상의 서정아 연구원

강병하 회장은 또한 “이번 행사가 우리 기계설비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친교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조직위원님과 사무국 직원들, 그리고 학술대회를 적극 후원하고 학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사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은 건설인력기재과 이병훈 과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맞게된 이번 하계 학술대회는 기후변화 대응 미래 설비기술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는 뜻깊은 시간이며, 기계설비인의 잠재력과 미래 가능성을 확인하고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이다”면서 “기계설비 산업은 사회기반시설과 주택 등에서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해 온 핵심 산업이며 최근들어 친환경 건설의 핵심이자 미래 첨단산업 발전의 기초산업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호인 장관은 “기계설비 산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서, 기계설비인 여러분께서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라며, 정부에서도 가능한 한 모든 지원과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강호인 장관은 마지막으로 “이번 학술대회가 기계설비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녹색성장의 주역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술발표대회에서는 환기, 냉동기/열펌프, 건물에너지/공조부하, 압축기/히트파이프, 진동/유동제어, 신재생에너지, 열교환기, 에너지절약, 공조시스템 등 45개 대화장과 포스트 세션을 통해 총 210편의 기계설비 관련 논문이 발표됐으며, 다양한 친환경 설비기술 관련 토론회가 개최되고 기계설비업체의 신기술·신제품이 전시됐다.

한편 발표된 논문 중 11편이 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이 중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패키징의 열융착에

2016년도 대한설비공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우수논문상

제목	저자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패키징의 열응축에 관한 수치적 연구	김민호, 이용태 (세종대대학원), 정재동(세종대)
3중 효용 가스직화식 흡수식 냉동기의 기술개발	우성민, 김효상, 김광영, 이수용(삼중테크)
s-CO ₂ Brayton 사이클에서 PCHE Wet cooling에 관한 연구	김동호, 윤석호, 이공훈, 최준석, 윤의수 (한국기계연구원)
KS표준개정을 위한 수송용 전기식 냉동유닛 성능평가방법 개발 연구	서정식, 김대훈, 최연성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가정용 공조기의 실내 온열 쾌적성 향상에 관한 실험적 연구	주영주, 황준, 서형준, 김종문, 이상우(삼성전자)
태양광 전지를 갖춘 단독주택 모델에서의 전력 사용 최적 알고리즘 연구	서정아(세종대대학원), 신영기(세종대)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상데이터 작성에서 국내 기후 특성을 고려한 일사 모델 적합성 분석	심지수(성균관대대학원), 송두삼(성균관대)
제2종 LiBr-H ₂ O 흡수식 히트펌프의 운전 변수에 따른 성능 수치 해석	윤준성(전북대대학원), 권오경, 차동안, 배경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인관(월드이엔씨), 김민수, 박찬우(전북대)
냉동탑차용 강제대류방식 PCM축냉시스템 개발 및 현장적용 시험	전용호, 김진홍, 문진호, 이상렬(리우스), 김용찬(고려대), 정해용(세종대)
고온관 주변 하이브리드 단열재의 열전도 성능에 관한 연구	김귀택(서울대대학원), 박병규, 김민수(서울대), 변수영(한국지역난방공사)
증발기로 사용되는 판형열교환기의 건도 변화에 따른 열전달 및 압력강하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만배(서울과기대대학원), 박창용(서울과기대)

관한 수치적 연구’ 등 세 편의 논문이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우수논문 중 ‘태양광 전지를 갖춘 단독주택 모델에서의 전력 사용 최적 알고리즘 연구’를 발표한 세종대대학원 서정아 연구원에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이상일 회장이 우수논문상을 시상했다.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연구논문 발표

한편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원장 이언구)에서도 ‘건물부하 및 지중특성을 이용한 개방형지중열교환기 개발 방향’, ‘녹색설비기술의 분류체계에 관

한 연구’, ‘건물의 배관 단열 두께 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냉수배관을 중심으로)’ 등 총 3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연구원에서 발표한 ‘건물부하 및 지중특성을 이용한 개방형지중열교환기 개발 방향’은 건물 냉난방 부하와 지중특성을 고려하여 개방형 지중열교환기의 상향식 또는 하향식 흐름을 통해 지열 열교환 효율을 높이하고자 한 연구이다. 또한 ‘건물의 배관 단열 두께 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냉수배관을 중심으로)’는 기존 냉수배관에 적용되었던 국내 기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배관단열 기준을 제시한 연구이다. '녹색설비 기술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경우 녹색설비기술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적용 시 성능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를 목표로 한 국내 설비기술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이다.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이번 논문은 '2016년도 기본과제 및 수탁과제'로 수행되고 있는 연구로서, 연구원은 이번 학술대회 참가 및 논문게재를 통해 수행중인 연구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논문

부문	제목	저자
신재생에너지	건물부하 및 지중특성을 고려한 개방형 지중열교환기 개발 방향	류형규, 최승혁, 윤희원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에너지절약	건물의 배관 단열 두께 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 (냉수배관을 중심으로)	최승혁, 윤희원, 류형규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녹색설비기술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윤희원, 최승혁, 류형규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의 류형규 연구원은 '건물부하 및 지중특성을 고려한 개방형 지중열교환기 개발 방향' 논문을 발표했으며, <에너지절약 3> 대회장 좌장으로서 논문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한일엠이씨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최



한일엠이씨는 지난 6월 16일 엘타워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한일엠이씨(대표 정차수)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6월 16일 오후 5시 26분 서울시 서초동 소재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지난 50년 한일이 한 일에 담아온 큰 뜻은 ‘존중’입니다”란 슬로건 아래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기계설비업계 관련인 300여명이 참석하여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최상홍 회장의 ‘기계설비 인생 60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는 한일엠이씨의 역사를 기록한 패널이 전시돼 참석자들로 하여금 지난 50년간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도록 했다.

황금숙 전무의 진행으로 개최된 기념식은 정차수 대표이사의 개회사와 강병하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승일 세일이엔에스(주) 회장(대한

기계설비건설협회 고문), 정현화 구간건축 대표의 축사에 이어 최상홍 회장의 기념사가 있었다. 또한 최상홍 회장이 한일엠이씨 설립 당시 사용했던 메모장부터 지난 50년간 걸어온 발자취와 향후 50년 미래를 향한 내용을 담은 영상물 시청과 함께 서울대 남성 4중창단의 축하공연으로 분위기를 한층 돋웠다.

최상홍 회장은 기념식에서 지난 1996년부터 대한설비공학회에 ‘최상홍상’을 신설, 20년 동안 인재양성에 기여해왔던 ‘학술상’에 ‘학사 소지자’를 추가하고, ‘여성설비인상’을 신설하는 최상홍인재상 기금 약정서를 대한설비공학회 강병하 회장에게 전달했다. 또한 노승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에게는 감사 선물을 증정했다.

개회사 정차수 대표

설비산업의 불모지에서 1966년은 제1차 경제개발계획 마지막 해이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창립과 더불어 과학기술 입국의 첫 발을 내딛은 해로서 한일엠이씨 창립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도 되지 않는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이후 20년에 걸쳐 국가의 성장과 더불어 건설분야에서는 대규모 건축물이 설계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한일엠이씨는 안정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에너지, 지구환경, IT 등 시대의 흐름에 발빠른 대응으로 건축물 전체 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토탈엔지니어링업체로 발전하였다.

지금은 지난 50년과는 다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으며 우리 모두에게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지금 힘들지만 50년 전에도 힘들었다. 우리에게는 글로벌 도전정신과 창의적인 DNA가 있다. 우리업체가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면 세계 최고의 길도 가능하다.

지난 50년간 한일이 한 일에 담아온 큰 뜻은 '존중' 이다. 앞으로 50년에도 우리업체 발전과 나라사랑의 길로 갈수 있도록 창립이념을 계승하여 '감사'와 '존중'의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



기업이다. 반세기를 넘어 100년, 200년 성장의 역사를 만들기를 기원한다. 또한 최상홍 회장님은 스키, 골프 장타의 체력을 갖고 계실만큼 건강하시다. 100세 이상 후학들과 더불어 즐거운 인생이 되시길 기원한다.

축사 정승일 세일이엔에스(주) 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고문)

인간관계를 맺는데 존경스럽고 어렵기도 하고 토를 달 수 없는 분이 있다. 바로 최상홍 회장님이다. 처음 인연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계설비분야의 30년 전은 매우 영세했다. 어렵고 기댈 곳도 없던 시절이었다. 관련단체장들이 어려운 난관을 타개하고 뭔가 도모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 때 최상홍 회장님께서 기계설비협의회(현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설립에 앞장서서 열심히 하시고 초대 회장까지 맡아서 우리업체를 하나로 모으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셨다. 감사드린다.



그 때는 나도 바쁜 시절이어서 시간 뺏기는 일이라 망설였는데 열심히 하시는 최상홍 회장님을 보며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업계가 어려운데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라고 서슴없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소인배적인 생각에 화끈 달아올랐다.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여러 억울하고 모순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먼저 하자. 즐겁게 하자.' 고 생각했다. 이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임침은 씨앗이 되었고, 행동이 되고, 지침이자, 방향이자, 철학이 되었다. 또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전도사로 지냈다.

그 후로 회장님과는 업계 전반에 걸쳐 고민을 나누고 자문을 받았다. 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독립 과정에서 앞장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다. 진흙같은 세상에서 회장님께서서는 기계설비업계 전체의 위상을 향상시키고 환경을 바꿔왔다. 그리고 늘 "다같이 잘되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은 큰 위안이 되었다.

최상홍 회장님은 지난 60년간 기계설비업계 전반에 지도자로 활동하셨다. 회장님의 발자취는 '봉사와 따뜻한 애정, 희생'이다. 랄프 왈도 에머슨은 '진정한 성공이란' 시에서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 자신이 한때 이곳에서 살았음으로 해서 / 단 한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 지는 것 /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고 했다. 회장님으로 인해 기계설비가 눈부시게 발전했고 또 기계설비인이 행복해 한다면 회장님께서 이땅에 왔다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축사 강병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한일엠이씨는 지난 66년 설립 이래 최상홍 회장님의 리더십 하에 설비분야 기술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여왔다. 기업의 역사가 50년 지속되기 어려운데 최상홍 회장님께서 건재하셔서 감사드린다. 최상홍 회장님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에 이어 내가 세 번째 존경하는 인물로 10년 전 40주년 기념 때 「'적당'으로는 자부심을 얻을 수 없다」는 책을 내시며 실력을 경쟁력으로 하는 스토리를 쓰셨다.



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를 결성하시는데 주도하셨고 초대 회장을 맡아서 기계설비업계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연합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계설비의 날'을 7월 15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러한 영광이 있기까지 최상홍 회장님의 탁월한 혜안이 있었다.

또 우수인력 양성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하고 계신다. 96년 대한설비공학회에 최상홍 기술상, 학술상을 제정하여 우수인력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다. 또 2007년에는 신진교수상을 추가하셨다. 회장님의 이러한 행보는 인재사랑에서 비롯된다. 영혼이 있는 기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일엠이씨는 영혼이 있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뜨겁게 감사와 축하 드린다. 또 옆에서 회장님께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해주신 사모님께서도 감사드립니다. 50년은 향후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50년의 출발점이다.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축사 정현화 구간건축 대표

한일엠이씨의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일엠이씨가 지난 50년간 기계, 전기, 소방, 건축계에 미친 영향과 실적은 최고의 경지에 있다. 또한 최상홍 회장님께서도 기술적 학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60년간 우리나라 기계설비 발전을 위해 매진하여왔다. 그 심오한 철학과 사상은 후학들에게 길이 남을 것이다. 50년 전 설비에 대한 인식은 수세식 화장실로 바뀌어갈 정도로 불모지였고 공기조화 등 현대화가 막 시작되는 시기였다. 이후 발전을 거듭하여 90년대 무렵 건축계 전반에 완벽한 조직의 기계설비 수준으로 정착됐다. 이 과정에서 한일엠이씨는 토탈 엔지니어링으로 통합하고 기계설비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급변하는 시시대의 건축에서 혈관과 신경이 되는 엔지니어링 분야는 더 큰 변화를 예견할 수 있다. 한일이 미래의 변화를 선도



하는 상상력으로 인간의 새로운 생활환경 개선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알파고의 시대, 엔지니어의 상상력은 무엇이며 인간의 생활환경은 어떻게 변화될까가 과제이다. 한일엠이씨는 기술력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환경 최적화를 위해 훌륭한 미래를 제안할 것으로 믿는다. 마지막으로 최상홍 회장님의 건강을 빈다.

기념사 최상홍 회장

기업이 50주년이 되기까지는 행운과 건강이 따라야 한다. 창립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다. 감격스럽다. 창립이념의 마지막 키워드는 '나라사랑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나라사랑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또 100년의 한일을 지켜보고 싶다. 그동안 나와 한일엠이씨를 신뢰하고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했다. 회사 창립 50주년과 개인적인 기계설비인생 60년이 있기까지 여러분 모두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20년 전인 1996년부터 공학회에 '인재상'을 만들어 인재를 키우고 있다. 올해부터는 학술상에 '학사논문상'과 '여성설비인상'을 추가했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발전을 위해서다. 한일의 50년 역사는 계속 견재하여 100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한일엠이씨는

한일엠이씨는 1966년 기계설비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로 설립된 후 우수인력을 통한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0년의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기계, 전기, 소방 설계에서부터 감리, 진단성능개선, 친환경 컨설팅, 연구개발까지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여왔다. 꾸준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녹색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세계 속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세계 속의 한일엠이씨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일엠이씨는 그동안 LG트윈타워, 한국종합무역센터, COEX, ASEM, LH본사 신사옥, 부산 제2롯데월드, 전경련회관, 부산국제금융센터 복합개발사업, 이화여대 캠퍼스센터, 호텔 신라 노후화 진단 및 리모델링 설계,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각', 앙골라 KINAXXI MXD COMPLEX 등 국내외 유수의 건축물 관련 설비설계를 했다. 